

유럽의 부르카 논쟁 “범죄 악용 가능성도”

유럽에서 부르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은 6일 한 일간지 기고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를 입은 여성을 '은행 강도' '우체 통' 등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영국 평등·인권위원회에 신고당했다. 무슬림 여성 혐오를 반영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여론은 팽팽히 맞섰다. 영국인 1,6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존슨이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자(45%)보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사람(48%)이 약간 많았다.

부르카는 무슬림 여성 복장 중 가장 보수적인 형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리며 눈 부위도 망사로 된 천으로 가린다. 네덜란드는 지난 1일부터 부르카와 니캅을 착용하고 버스, 지하철,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에 나타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부르카는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데 반해 니캅은 눈 부위는 노출한다. '히잡'은 얼굴을 드러내고 머리를 감싸는 형태다.

네덜란드가 부르카 1호 금지국은 아니다. 프랑스가 2011년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벨기에·불가리아·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도 줄줄이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다. 이 나라들은 부르카가 사회 통합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또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다. 테러리스트 남성이 부르카로 신분을 가릴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르카 금지국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르카가 개인의 종교 자유인지, 사회 부조화의 상징인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빛 내서라도 '소비 욕구' 채우는 중국 젊은이

바링허우(1980년대생), 주링허우(1990년대생)로 불리는 중국의 20, 30대 사이에 불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열풍으로 중국에서 부채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동아일보'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바링허우, 주링허우는 이전 세대와 달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소비 욕구를 채우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자동차 및 고가 전자제품 구입, 인테리어 지출, 휴가 등의 소비 패턴이 신용카드 대출 등 소비자금융대출액을 크게 높였다.

중국의 신용카드 대출 등 소비자금융대출은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 빌려주는 온라인 대출(P2P) 광풍과 만나면서 호황기를 맞았다. 대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이런 소비자금융대출은 대출 장벽이 거의 없어 중국 금융위기를 가져올 판도

라의 상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FT는 빛을 내서라도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중국 20대 소비자들이 P2P의 핵심 고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온라인금융 정보업체 왕다이즈자에 따르면 바링허우 주링허우의 대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P2P를 통한 대출액은 2013년 124억3,200만 위안에 비해 무려 70배나 증가한 8,722억8,000만 위안에 달했다

하지만 P2P는 부실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3개월 이상 부실여신 비율이 15%를 넘어섰고 기한이 지난 대출 비율은 50% 이상이나 된다. 중국 당국이 P2P 단속에 나서자 투자자들이 6월 베이징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려다 해산당하는 등 사회 불안 요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중국 소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이주자 급증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에콰도르가 경제 위기를 피해 자국으로 유입되는 베네수엘라 이주자들이 급증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9일 현지언론인 엘 코메르시오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전날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콜롬비아 국경과 접한 북동부 3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이달까지 유지된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는 카르치, 피친차, 엘오로 지역으로의 이주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북부 국경 지역으로 유입되는 베네수엘라 이주자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에만 4천여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콜롬비아 접경 지역으

로 유입되고 있다. 이 지역에 이민 당국 직원들과 의료진, 경찰 등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입국한 베네수엘라인들이 돈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 잘 곳마저 없다. 이들에게 텐트와 개인위생 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 상황과 만성적인 물품 부족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콜롬비아를 통해 에콰도르나 페루, 칠레 등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최소 1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범죄, 만성적인 식품 부족난을 못 이겨 모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